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교 주일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가 모든 이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한다.

특pecially 오늘은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나 자신,
더 나아가 내 삶의 자리들을 복음화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복음화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이가 예수님께로 모여 그분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힘쓰자.

시온 산에 대한 환시

시온 산

시온 산성(예루살렘)과 성전 산 전체를 일컬으며,
모리야 산(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산)으로도 불림
또한, 멜키체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던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을 섬기던 곳

“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들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이사 2,4)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위험하던 시기,
그는 전쟁이 끝나면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참된 주님이심을 깨닫고 시온 산으로 모여들 것이라 말하며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시절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100여 년간 전쟁을 피하게 된다.

참된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됨.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곧, 모든 민족은 온 산들 위에 굳게 서 있는

새 예루살렘이자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모여올 것이기 때문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 5,13-14)

”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초대하는 공동체이다.

전교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므로

복음을 충실히 전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10,14) ”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또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이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나선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당신을 전하라고 하신다.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마태 28,19) ”

복음 선포의 내용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힌다.

“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느님께서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로마 10,9)

”

이러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부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 10,14)

”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탓이지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탓일 것이다.

입으로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마태 7,21)”

전교란 말보다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곳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10,17)”

우리의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전교 주일인 오늘, 나부터 말씀으로 변화되어 기쁘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을 복음화시켜 나가기로 다짐해 보자.